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수익률커브 플랫 해소될까
 - ◇ (초점)-제도변경 지연에 CD 금리 왜곡 심화..픽싱 리스크 확대에 '대체금리' 수요↑
 - ◇ (초점)-대형 역외펀드 손절에 원화채 '흔들'..4 월 인상설 확산에 '진퇴양난'
 - ◇ (초점)-연준 긴축과 맞물린 배당 시즌..외환수급 쓸림 경계해야 할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어 러시아 측 동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4 월 6 일 폭설이 내린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로이터/막심 세메토프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25.1	-0.8%	-3.0%	-8.6%	유로	1.0878	-1.6%	-4.3%	-6.9%
100엔 대비	988.7	0.7%	4.5%	+1.8%	엔	124.34	-1.5%	-7.4%	-10.3%
유로 대비	1,337.2	0.8%	1.1%	-1.9%	위안	6.3644	0.0%	-0.1%	+2.7%
위안 대비	193.13	-0.7%	-3.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4,721.12	-0.3%	-4.5%	+18.7%
코스피	2,700.39	-1.4%	-9.3%	+3.6%	나스닥	13,711.00	-3.9%	-12.4%	+21.4%
코스닥	934.73	-0.6%	-9.6%	+6.8%	S&P500	4,488.28	-1.3%	-5.8%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83.96	-1.4%	-7.3%	-4.9%
국고채 3Y	2.987%	20.3bp	118.9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116%	17.4bp	110.5bp	+67.6bp	미국채 2Y	2.510%	5.0bp	178.0bp	+61.0bp
국고채 10Y	3.169%	16.2bp	91.9bp	+53.7bp	미국채 10Y	2.700%	31.0bp	119.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7.90	-1.5%	29.8%	+55.8%	한국 5Y	29.3bp	0.4bp	7.2bp	-0.7bp
금(현물)	1,946.85	1.1%	6.5%	-3.6%	일본 5Y	18.3bp	-0.6bp	0.7bp	+2.1bp
TR상품지수	3,820.80	0.0%	14.4%	+24.6%	중국 5Y	62.8bp	2.7bp	21.6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11일(월)>

- 금감원,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관세청, 4월 1-1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12:00)

<12일(화)>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2년 역내 경제전망 발표(11:40)
- 기재부, 부총리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12:00)
- 한은, 2월 통화 및 유동성(12:00)

<13일(수)>

- 통계청, 3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08:00)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8:00)
- 금융위, 3월 가계대출 동향(12:00)
- 한은, 3월중 금융시장 동향·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4일(목)>

- 한은, 금통위 본회의(09:00) 및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11:20)
- 기재부,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0:00)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12:00)

<15일(금)>

- 기재부,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30)
- 기재부, 4월 최근 경제동향(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11일(월)>

- 중국 3월 CPI · PPI (10:30)

<12일(화)>

- 일본 3월 기업상품가격지수 · 은행대출 (08:50)
- 미국 3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 미국 3월 CPI (21:30)

<13일(수)>

- 미국 3월 연방예산 (03:00)
- 일본 4월 로이터단칸 서비스업 · 제조업지수 (08:00)
- 일본 2월 기계류주문 (08:50)
- 뉴질랜드 연방은행, 금리 발표 (10:00)
- 중국 3월 수출입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3월 PPI (21:30)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23:00) · 티프 맥클럼 총재 기자회견(자정)

<1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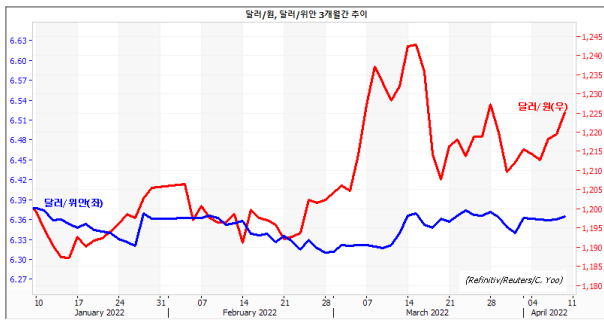
- ECB 통화정책회의 · 금리 발표 (08:45)
- 미국 3월 소매판매 · 수출입물가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3:00)
- 미국 2월 소매 · 기업재고 (23:00)

<15일(금)>

- 중국 3월 주택가격 (10:30)
- 미국 4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3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호주, 홍콩,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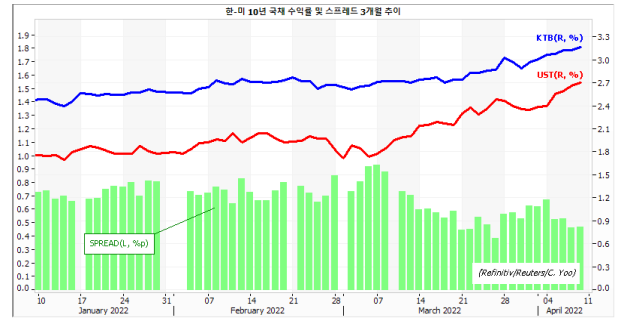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물가를 비롯한 주요국 핵심 경제지표와 국내외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배당 지급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을 대폭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220-1245 원이다.
- 지난 주말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230 원 선으로 훌쩍 올라 단기 박스권 상단을 뚫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환율은 주초부터 시장 긴장감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주 발표되는 미국 3월 물가지표 결과를 앞두고 전 주말 달러지수는 약 2년 만에 100 선을 넘어 서기도 했다.
- 물가 정점론에 대한 낙관적 기대도 있지만 공격적인 연준 긴축 정책과 맞물려 시장 불안이 가중될 여지는 있다.
- 중국 3월 수출입 지표 결과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외 통화정책 회의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캐나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다.
-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 금주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 지급도 몰려 있어 외환 수급을 둘러싼 긴장감도 크다.
- 지난주 3거래일 연속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8 조원을 팔아치운 외국인들의 순매도 지속 여부와 관련 수급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 달러/원 환율을 둘러싼 여러 재료들이 한꺼번에 상승 변동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형성됨에 따라 환율이 1230 원대에서 또다시 상승 가속을 붙여 1240 원대의 치열한 공방전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물은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 국채 2년/10년물 역전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일단 커브발 경기침체 우려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잠겼다. 연준이 매월 950억달러 규모로 채권 매입을 줄여나간다는 발표 영향이다. 다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 연준이 자산가격을 떠받친다는 '연준 풋'이 아니라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연준 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 그렇다고 단기물 쪽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 역외 펀드가 만기 1~2년 채권 매물을 쏟아내는 가운데 본드스왑 포지션의 연와인딩까지 가세하면서 촉발된 불안이 현재진행형이다.
- 여기에 금통위가 오는 14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에 채권 매수 심리가 더욱 악화됐다.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회의 뒤 일부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 다만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에도 공개 발언에 나서며 따라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 12일에는 미국 노동통계국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락 여파가 CPI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취임 한 달을 남겨놓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기재부 제1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등 1차 내각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볼 재료다.

(분석)-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수익률커브 플랫 해소될까

4월 07일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한 긴축을 시사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빠른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플랫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6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 3월 회의록에서 관리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으로 자산 보유분을 월 최대 950억 달러 줄이는데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는 지난 2017~2019년 양적 긴축 당시보다 더 빠르다.

연준이 이 속도로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경우 재무부가 매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국채 장기물 수익률이 단기물 수익률보다 다시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몇 주간 여러 차례 나타난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을 우려해 온 일부 투자자들에게 안도가 될 것이다.

수익률 곡선 역전은 과거 경기침체를 신호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의 경우 연준의 전례 없는 채권 매입으로 장기물 수익률이 평소보다 낮아졌다며 경기침체 신호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률 곡선이 잠깐 역전되는 경우라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역전 현상이 연준의 채권 보유분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압투스캐피탈어드바이저스의 존 루크 타이너 채권 애널리스트는 "(대차대조표 축소로) 곡선은 스틱플랫 것"이라며 "그들(연준)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플랫폼 곡선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준이 긴축 과정에서 대차대조표에 더 의존해 금리 인상에 덜 매파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수익률 곡선은 다시 스틱플랫 수 있다.

제나디 골드버그 TD 증권 금리 전략가는 금리 인상과 비교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더 의존한다면 "커브를 약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거센 매도세가 나타난 단기물 구간이 안정화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곧 완화되리라는 징후가 거의 없는 가운데, 최근 몇 주간 월가에서는 연준의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경제 타격 우려가 확대됐다.

도이치은행은 5일 지정학적 격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연준의 대대적 긴축이 뒤섞이면서 내년 여름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주식은 20% 하락할 것이라며,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미국의 경기침체를 전망했다.

도이치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향후 세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씩 인상하고, 최소 75bp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연준의 3월 회의록은 이같은 전망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착실한 금리 인상의 발판을 마련하고 연준이 치솟는 소비자물가에 맞서고 있다는 견해를 강화했다.

한편, 모간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노트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와 관련해 연준의 예상 추정치가 자신들의 전망치인 월 800억 달러보다 컸다고 말했다.

그들은 "회의록의 전반적인 톤을 살펴보면 관리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에 대한 관리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반면, 성장이나 성장 전망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초점)-제도변경 지연에 CD 금리 왜곡 심화..픽스 리스크 확대에 '대체금리' 수요↑

서울, 4월 8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당국의 '양도성예금증서(CD) 산출 업무 규정' 심사가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픽싱 리스크에 직면한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도 점증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급변동하는 시점에도 CD 고시금리가 경직성을 보인 채 움직이지 않자 대체금리를 활용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미동 않는 CD 금리..고시제도 변경 지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3개월 CD 금리는 1.51%에 고시됐다. CD 금리는 지난 1월 27일 1.49%에서 1.50%로 오른 후 두 달여간 멈춰 있다. 지난달 24일 1bp 상승한 이후 움직임이 없다. 3월 이후 국고채 주요 금리가 80bp 내외로 급증했지만 CD 금리는 1bp 오르는 데 그쳤다.

국내 통화당국이 4월 또는 5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상황이지만 CD 금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이 줄어든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CD 발행 수요가 감소했고 고시증권사들도 큰 고민 없이 전날 민간평가사 금리 수준을 추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시장에서선 새로운 CD 금리 산출 업무 규정이 도입되면 CD 고시금리의 경직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CD 고시금리 제출 증권사 선정 기준을 놓고 금융당국의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당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했던 산출 규정의 확정 시점이 벌써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실무 책임자들이 최근 교체되면서 논의에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협 의 한 관계자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의 경우 실거래만 가지고 종합하면 되는데 CD 금리의 경우 주관적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에 산출 기관들의 부담이 크다"며 "제출 기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두고 균형을 찾기가 어려워 규정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중에는 최소한 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6월까지의 고시금리 제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D 픽싱 리스크 커져..대체금리 요구도 늘어

문제는 시장금리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CD 금리의 경직성에 따른 픽싱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자율스왑(IRS)은 3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자액을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고정금리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변하지 않지만 변동금리 이자액은 CD 금리에 따라 변하게 돼 있다.

지난 한 달간 현물 채권을 비롯한 IRS 금리가 폭등한 상황에서 CD 금리만 요지부동인 만큼 시장 왜곡이 커질 수밖에 없다.

CD 고시 체계의 경직성 때문에 CD 금리가 향후 기준금리 조정 전망을 점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한 번에 반영하는 것도 문제다.

당장 금리 폭등으로 시장의 적정 가격 탐색 기능이 마비되고 기존 포지션에 대한 헤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델타가 큰 기관일수록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 방'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 국내 은행 스왑 딜러는 "5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시장금리가 내려오면 몰라도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CD 금리는 그때 가서 한꺼번에 20~30bp 오를 수밖에 없다"며 "CD 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고 한 방에 올라버리면 우리는 헤지도 안 되고 털 수도 없는 포지션을 들고 더 크게 깨지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 회의 때 델타가 큰 곳은 당일에 10억 원 넘게 손익이 움직일 수도 있는 문제"라며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CD 금리 경직성에 따른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RS 거래 시 준거금리로 CD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CD 금리 경직성에 따른 리스크가 워낙 커진 만큼 투자자들이 IRS 변동금리로 CD 대신 다른 금리를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B 국내 은행 스왑 딜러는 "지금 만기 3개월 이내 채권밖에 숨을 곳이 없다 보니 짧은 CD나 은행채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CD 발행이 고시금리 경직

성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CD 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CD 금리의 경직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 투자자들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금리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5년 IRS 금리를 3개월마다 픽싱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식인데 어제 한 캐피탈사에서 대체금리로 수천억원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은행들이 먼저 CD 금리를 높여 발행하기 시작하면 CD 금리도 어느 정도 시장금리를 쫓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점)-대형 역외펀드 손절에 원화채 '흔들'..4월 인상설 확산에 '진퇴양난'

서울, 4월 8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원화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역외 대형 펀드들의 손절성 단기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드 스왑 포지션의 언와인딩까지 나오자 위기감이 걸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40분 현재 3년 국채 선물 6월물은 전날보다 34틱 하락한 105.25, 10년 선물은 59틱 내린 115.16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은 장 초반 소폭 약세 출발한 이후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7일(현지시간) 뉴욕 장에서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단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면서 국내 채권시장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전장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가 급격히 변했다. 현물, 이자율 스왑(IRS) 시장에 단기물 매도가 쏟아지면서 3년, 10년 국채 선물 시장까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20-3, 19-7, 21-6 등 단기물을 중심으로 '묻지마 매도'가 이어지면서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주까지 급격히 높였던 글로벌 수익률 곡선이 최근 서기 시작했지만 이번 주 원화채 단기물 시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고 있다.

시장에선 외국계 대형 펀드 두 곳에서 손절성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RS 금리가 워낙 올라 있어 고객 매도분에 대한 헤지가 어려워진 은행들이 선물 매도로 대응하면서 시장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템플턴펀드보다 훨씬 크게 금리 베팅을 하는 두 곳 역외 펀드에서 1년~2년 채권을 며칠째 계속 팔고 있다"며 "여기에 본드 스왑 포지션의 손절까지 가세하면서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이 아무리 밀려도 지금은 그걸 받는 것보다 IRS 리시브를 하는 게 이익이 크다"며 "헤지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해외 IB를 중심으로 4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는 것도 채권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20-3이나 19-7, 21-6 같은 물건들이 며칠간 매일같이 -10원 이상씩 매도가 나왔다"며 "이쪽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3년도 같이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분위기라 4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5월에 50bp 인상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결국 신임 한은 총재의 의중이 중요해질 듯하다"고 말했다.

C 국내 은행 채권 딜러는 "통화당국 스탠스에 대한 컨센서스가 돌변하고 있는 데다 호가가 얇아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며 "다음 주 2, 3년물 입찰도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초점)-연준 긴축과 맞물린 배당 시즌..외환수급 쏠림 경계해야 할까

서울, 4월 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강한 긴축 시그널을 보낸 가운데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시즌이 도래하면서 이번 이벤트가 달러/원 환율 움직임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이터가 국내 상장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될 배당액(1천억원 상당)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최대 7조원 정도의 역송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일이 신한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의 배당 지급일인 점을 감안하면 외환시장은 당장 오늘부터 관련 수급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두 기업의 외국인 배당 몫은 5600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다음 주다. 배당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수 상장기업의 배당 지급이 다음 주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로이터가 추산한 이 기간 외국인 배당액은 약 3.7조원이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3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일 만큼 역내 달러 수급은 여유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계절적으로 배당 역송금 수요가 더해지는 점은 수급적 측면에서 분명 부담 요인이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일시적 수급을 의식하면서도 이러한 재료에 환율이 흔들리기보다는 하단이 조금 단단해질 재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 수급 쏠림 크지 않을 수도

삼성전자의 일회성 특별배당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 외국인 배당액이 약 6조원 급감한 데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함께 급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배당 수급을 둘러싼 경계감은 축소됐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이자와 배당, 즉 투자소득에 대한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81억달러였던 반면, 국내 투자자가 받은 투자소득 수입은 29억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작년에는 79억달러 규모의 투자소득이 지급된 한편, 투자소득으로 받은 규모는 41억달러로 이전보다 확실히 그 규모가 확대됐다.

또한, 작년 5월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급증한 영향으로 투자소득 수입이 역대 최대인 70억달러대로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자와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가 역대 1위를 기록한 점을 볼 때

외인 배당 수급 관련 영향력이 이전처럼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긴축의 폭과 속도를 높일 것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은 잦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준 긴축 재료가 선반영된 측면도 높아 수급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수급이 양방향으로 소화되는 정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요즘 네고와 오퍼 매물이 강해서 외국인 배당 수급은 큰 영향이 있겠나 싶다. 달러/원 하방 경직성을 부여하는 재료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배당 이벤트를 변수라고 보지는 않는다. 강달러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연준 재료를 소화하고 나면 오히려 환율은 아래쪽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알림: 뉴스레터 이메일 서비스가 4월말 종료됩니다.

저희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가 주간 뉴스레터 배포 방식을 변경합니다.

그에 따라 이메일 서비스는 4월 말 종료되며, 이후 뉴스레터는 레피니티브 아이콘 단말기로 계속 제공됩니다.

그동안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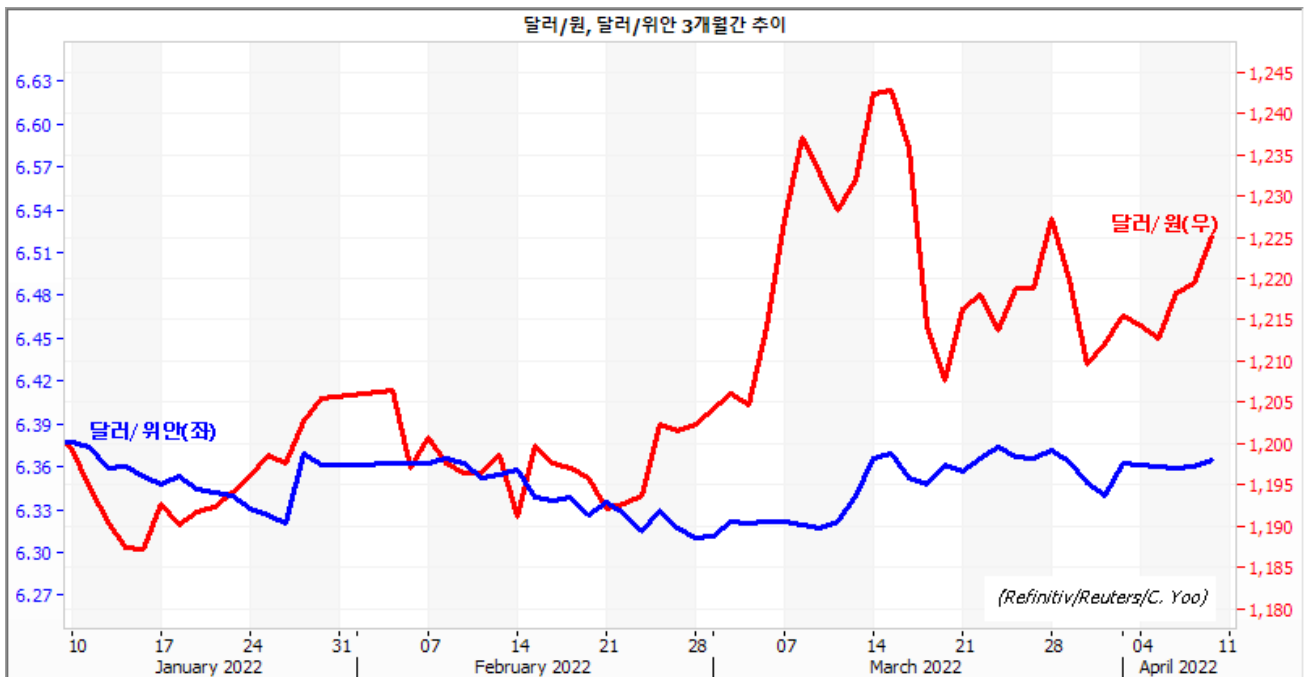
오는 5월 이후 로이터 뉴스레터 구독에 관한 사항은 레피니티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